

베트남 투자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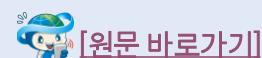
KOTRA 해외시장뉴스 · 무역관 뉴스



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는 베트남

베트남이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국내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이행하면서 탄소배출권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을 확립할 예정이다. 풍부한 산림 자원과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용의를 보이는 다수의 기업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탄소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Open Development Mekong Analysis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간 57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베트남의 산림 면적은 약 9억9000만m²로, 향후 10년간 최대 125만m²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 광남성 등 전국 23개 성·시에서는 탄소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남부 광남성에는 총 62만8000헥타르 면적의 숲이 있어 연간 약 1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이 국제사회에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리프연합(LEAF Coalition)의 수탁자인 산림금융기구(EMERGENT)와 의정서를 체결해 베트남이 2022~2026년 중남부 및 중부 고원지대 산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515만 톤을 LEAF 및 EMERGENT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은 해당 조치를 통해 약 5150만 달러 가량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베트남 에너지효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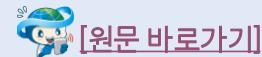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EE)은 베트남 에너지 안보에 있어 주요한 사안이다. 베트남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5~7% 절감, 2019년부터 2030년까지 8~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은 국가 경제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한 축이다. 이는 전체 경제 규모 중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에너지 공급 안보 보장,

에너지 대외 의존도 완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 보호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국가 전략 목표를 지향한다. 베트남은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 발전이 빠른 편에 속하며,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 및 기후 문제, 에너지 수요 증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포괄적 에너지효율 정책은 필수 사항이 되었다.

2022년 1분기 베트남은 휘발유 266만 톤 및 기타 석유류 24억5000만 달러 상당을 수입하여, 2021년 동기 대비 물량은 26.8%, 금액은 128.5% 급증한 수치를 기록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은 또한 1분기 국내 생산량에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석유기업이 2022년 2분기에 24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할 것을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적 성장을 위해 에너지 수급량 증가와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 특히 미래 에너지 수급량 충족 및 현재 에너지 손실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 ...





2022년 하노이 지역내총생산(GRDP), 8.89% 달성 전망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하 민 하이(Ha Minh Hai) 부위원장은 12월 7일 제10차 시 인민의회 회의에서 2022년 설정된 22개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힘. 하노이시 조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연간 목표치 대비 6.8% 증가한 333조 동(140억 달러)을 달성하였으며 각종 경제개발목표 외에도 사회문화 발전 계획을 발표함. 또한, 3월 15일 경제활동 재개 이후 2조 6천억 동(1억 9백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18만 3천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연간 목표치의 14.3%를 초과한 수치라고 밝힘. 2021~2025년 동안의 문화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668개의 문화·사회 관련 프로젝트에 11조 4천억 동(4억 7,77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였다고 덧붙임.



베트남 대외무역 수출, 2022년 11월 기준 3,420억 달러 달성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무역수지가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11월 수출 금액은 전월 대비 3.9% 감소한 291억 8천만 달러이며, 전년 동기 대비는 13.4% 증가한 3,422억 1천만 달러임.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나, 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성장을 보여줌. 한편, CP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가에 대한 베트남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약 5만 개의 중소기업에서 CPTPP를 통한 시장 확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 산업무역부, 전기 소매가격 인상 검토

베트남전력(EVN)은 산업무역부에 소매가격 인상안을 제출함. 베트남전력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력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손실은 160조 동이고, 올 연말까지는 31조 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힘.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인상 시점 및 인상 폭이 핵심임. 베트남은 2019년 3월 이후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kWh) 당 1,864.44 동(VAT 제외)으로 책정하여 태아세안 국가들의 평균 요금에 비해 낮은 소매가격을 유지함. EVN에서는 자체 인상 가능 폭을 넘어선, 산업무역부 허가가 필요한 5~10% 인상률을 요구함.



베트남 정부, 휘발유 가격 4% 이상 인하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지난 2개월 간 4번의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함. RON95 휘발유는 리터당 22,700동으로 4.54%가 인하되었고, E5 RON92 휘발유는 21,670동으로 4.41%가 인하되었음. 경유 역시 6.41% 하락한 23,210동으로 가격이 책정됨. 이에 따른 베트남 국내 원유 수입 및 유통업체들의 불만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낮은 소매 가격 책정으로 인한 손실과 지나친 정부 개입에 대한 불만이 주요인임.



호주 외교통상부, 베트남 탄소 시장 330만 달러 규모 파트너십 지원 발표

호주 외교통상부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플랫폼(Business Partnerships Platform, BPP)을 통해 6개 민간 분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6개 민간 부문 참여 다자 파트너십이 민간 분야 370만 달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33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지원함. 또한 이는 지속 가능한 베트남 국내 탄소 시장 환경 조성이 목적임. “자발적 탄소 시장” 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도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생산자에 대한 탄소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지역 이해관계자 역량 구축 및 사회적 이익 창출이 목적임.



** 베트남 2022 HS code 개정안 12/29일로 발효 연기 **

하노이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Q : 베트남 수출 시 적용되는 HS code가 아직 WCO 제 7차 개정안에 따른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7차 개정안이 반영될 예정인가요?

A : 2022년 6월 8일에 재무부 시행규칙 31/2022/TT-BTC(베트남 수출, 수입물품 리스트)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부록1로 2022 AHTN(Asean Harmonized Tariff Schedules)을 반영한 베트남 수출입 물품 Hs code 리스트와 함께 HS code 해석을 위한 6가지 통칙이 부록 2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HS code의 6자리까지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WCO에서 정한 바를 따르나, 뒤의 2자리의 경우 AHTN을 따른 8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8자리에 따라 물품이 분류 가능한 세번 및 적용 세율이 상이할 수 있어, 베트남으로 수출입을 하고 계신 기업에서는 해당 시행 규칙 부록을 참조하시어 사전에 적용 가능 세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 관세율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정안을 발표하여 각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예정안에는 각 협정별로 새로운 개정 우대 세율에 대한 관세율표가 2022년도 12월 1일에 발효할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22년 11월 30일자로 31/2022/TT-BTC의 효력을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정지한다는 시행규칙 발표(72/2022/TT-BTC)가 있어, 베트남 수출입 업무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경제지표 (USD 백만 / 증감률 %)

FDI 국별(1988.1.1.~2022.10.20. 누계)

- 한국 80,611 (9,462건)
- 일본 68,345 (4,949건)
- 싱가포르 70,388 (3,032건)

FDI 산업별(2022.10.20. 기준 누계)

- 제조, 가공 257,455 (15,850건)
- 부동산 경영 65,763 (1,058건)
-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38,374 (184건)

수출입 현황(2022.10. 누계)

- 수출 312,943
- 수입 303,354

한-베트남 교역 동향(2022.10. 누계)

-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 51,563
-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22,916
- 무역수지 28,647